

교육여건 개선 최우선 과제 ... 지역인력 양성 적극 나서야

빛가람 혁신도시 6개월

⑧ 과제와 전망

빛가람 혁신도시가 빠른 속도로 자급·자족도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정주 여건 및 지역인력 양성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보장할 교육 여건 개선은 가장 우선적인 숙제로 지적된다.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선 교육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에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가 향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국가정책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 동반 이주 4분의1에 불과, 문제는 교육=지난 4월 국회의원추진위원회 소속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기관의 이주 직원 3217명 중 가족동반 이주 직원은 719명으로 22.4%에 그쳤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고 직원 본인만 이주한 경우는 2498명으로 77.6%에 달했다. 나머지 9개 이전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6000여명이 넘는 기관 직원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내려왔지만 이처럼 가족 동반 이주가 크게 늘고 있지 않는 이

고등학교 없어 이전기관 직원 가족동반 이주 22% 불과
입주기관 지역인재 더 뽑고 개발이익 환원 빨리 이뤄져야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최고 기업도시 부푼 꿈”

유는 자녀를 위한 교육 환경 때문이다. 직원들은 대부분 중학교까진 문제가 없더라도 고등학교는 최소 광주 명문고 수준의 교육 시설이 갖춰지길 원하고 있다. 자사고나 특목고 수준의 학교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다.

올로 이주한 한 이전 기관의 직원은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부족은 감수할 수 있지만 교육 환경의 뒤처짐 때문에 가족과 함께 내려올 수 없었다”며 “지자체와 관련기관이 교육 환경 개선에 ‘올인’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엔 봉황고등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로는 수도권의 ‘눈 높은’ 학부모들의 수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실제 이전 기관들은 5년간 감면되는 지방세를 낼 테니, 이를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투입해달라는 요구마저 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직원 자녀가 광주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주 직원의 가족

해체를 막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 달성에 가장 부합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지역인력 양성...개발이익 환원은 언제=빛가람 혁신도시 입주기관의 지역인력 양성도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기관들은 광주·전남에서 246명(정규직 214명·비정규직 3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채용 규모(정규직 1842명·비정규직 137명 총 1979명)의 12.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비해 50명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이전기관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혁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거둬들이는 개발이익금의 환원 문제도 과제다.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혁신도시 개발은 조성비가 거의 완료되면서 구체적인 개발이익금의 환원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개발 주체들은 현재 이익금의 10% 정도를 지자체에 부담하게 돼 있지만, 교육재정 확충 등을 위해 이를 더 늘려야 한



하늘에서 바라본 빛가람 혁신도시와 한국전력 전경.

(나주시 제공)

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을 공공기관이 주도한 만큼 개발 이익금의 재투자 범위 및 규모를 정해 혁신도시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입주 기관들의 주장이다.

◇2020년 국내 최고 기관·기업 집적도시 될 터=빛가람 혁신도시의 인구 진입은 올 연말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만5000명가량의 유동인구가 형성돼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과 지자체가 힘을 보태 500개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에 산학연 클러스터 설립이 빨라질 수록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관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머지않아 연구기관이 집적된 대전의 대덕밸리를 넘어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모여 국내 최고의 기업 집적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90%대가 넘는 아파트 분양률을 기록한

만큼, 입주인이 수요를 창출하고 입주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이 높아지면 내년부터 발전 속도가 올해의 배 이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빛가람 혁신도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산업, 정보통신 등 이전 기관과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측면이다. 성공적으로 연결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바캉스 제품 구입하고 여행상품권 받고

밀레, 휴가철 특별 이벤트

밀레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

밀레는 오는 7월26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되는 이번 할인(일부 품목 제외) 이벤트는 바캉스를 준비 중인 직장인, 캠퍼스와 같은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 단위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다. 할인 혜택은 성인 제품과 키즈 라인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5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고급 비치 타월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밀레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http://www.mehmall.com)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상품, 이월 상품 구분 없이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2명을 추첨해 각각 140만원 상당의 중국 하이난 여행권(1인 2매)과, 120만원 상당의 라오스 여행권(1인 2매)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이며, 10만원 이상 구매할 시 자동 응모 된다. 당첨자는 8월21일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와 혜택은 밀레의 멤버십 카드인 ‘엠 포인트(M-Point) 카드’ 회원에 한해 적용된다. 엠 포인트 카드는 밀레 전국 매장 어디서나 간단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 후 곧바로 제품 구매 및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

“여름품목 파격 세일 합니다”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메르스 침체된 소비심리 개선

패션잡화 등 최대 30% 할인

지역 백화점이 역대 최고 여름품목 세일에 돌입한다. 기간은 예년보다 축소했지만 알찬 품목 구성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소비심리 개선에 나선다는 각오다.

광주신세계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여름 시즌오프’에 들어간다. 패션잡화, 생활, 여성, 남성, 아동, 골프, 스포츠 의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세일을 진행한다. 피어리, DKNY, 클럼모나코, 시스템웬트, 질스튜어트 뉴욕, 알레그리, 바네사브루노 등의 유명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는 30% 가장 할인한다.

여름 패션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는 선글라스, 주얼리, 핸드백, 슈즈 등의 패션잡화도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스와로브스키, 제이에스티나, MCM, 호미가, 가바, 라움에디션 등과 비비안에스트우드, 지방사, 제나, 겐조 등의

선글라스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여성 브랜드 미세스, 엔디엔, 지고트, 엠씨, 크레송 등과 남성 브랜드와 티아이포맨, 커스텀멜로우 등에서는 최대 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여름 세일기간 첫 주말인 26일부터 28일까지 신세계 카드(씨티·삼성·포인트)로 30·60·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5%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6일부터 7월19일까지 24일간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이번 여름 정기세일은 예년보다 참여 브랜드와 할인율을 대폭 늘렸다. 특히 블랙야크, 라푸마, 밀레, 네파 등 아웃도어 브랜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하며, 일부는 세일 적용품목을 신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와 핸드백 브랜드 루즈앤라운지는 세일에 처음 참여한 30% 시즌오프를 진행하며 빈폴, 타미힐피거, 폴로, 라코스테, 헤이스 등도 시즌오프를 통해 30% 할인 판매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는 세일 첫 주말 행사로 아웃도어 브랜드와 골프 브랜드가 참여하는 ‘레저 사계절 상품전’이 진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5.06 (-0.47)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1)
▲ 코스닥 753.66 (+7.04)	▲ 환율 (USD) 1110.00원 (+1.60)

‘통신 요금인가제’ 25년만에 폐지

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 할당

정부가 25년째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 오랫동안 굳어진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 해소와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폐지가 확정된 요금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

렵게됐고,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리는 인가절차로 인해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완전신고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 이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미래부는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GHz(TDD방식)나 2.6GHz(FDD방식)대역의 40MHz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해 사업자가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되도록 부담을 덜어 줬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신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야외 결혼식장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하여 운영 하실 분 환영!

■ 주인직매 H. 010-3605-5000

